10일 고흥군 영남면 남열해수욕장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TV를 통해 나로호(KSLV-I) 추락소식을 지켜보며 허탈해하고 있다. /고흥=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추락한 '우주의 꿈'… 충격·허탈

나로호 또 발사 실패에 고흥 관람객들 망연자실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5000만 국민의 희망을 담아 다음에는 꼭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재발사된 10일 고흥군 영남면의 남열해수욕장 등 고흥지역 주요 관망지에서는 탄성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이날 오후 5시1분 남열해수욕장 백사장. 나로호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자 5000여명의 관광객들이 일제히 '와' 하는 탄성을 쏟아냈다.

백사장 1㎞를 가득 메운 관광객들은 저마다 양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나로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때맞춰 5000만 국민의 염원을 담은 5000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어 백사장 특설무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발사 30초 경과, 고도 2.4km'라는 자막이 보이자 관광객들은 '대한민국 만세' '나로호 만세' 등을 외쳤다. 온 국민이 그리던 '우주 강국'의 꿈이 눈앞으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도 잠시. 나로호 발사 후 8분45초가 지난 뒤 대형 스크린에 '나로호와 통신두절'이라는 자막이 뜨자 '아~'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후 '통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막이 나왔지만, 관람객들의 얼굴에선 걱정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결국 오후 6시가 넘어 나로호가 이륙 2분여 만에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행사장 분위기는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 때까지 행사장에서 발을 떼지 못했던 관람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나 둘씩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아내와 함께 남열해수욕장을 찾은 윤영혁(32·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이번에는 머나먼 '우주의 꿈'이 이뤄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실패해 너무 안타깝다"면서 발길을 돌렸다.

고흥군민들의 낙담도 컸다. 박남순(여·68·고흥군 동강면)씨는 "오늘 또 로켓을 쏜다고 해서 모내기도 제쳐두고 나왔는데,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주의 꿈'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조원숙(여·53·보성군 조성면)씨는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우주클럽에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흥군 봉래면 덕암산과 팔영산, 동일면 봉남 등대 등지 등 고흥지역 10곳의 관망소에는 1만3000명의 관광객들이 몰려 나로호의 성공 발사를 기원했다.

/고흥=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찜질방 베개·매트에 곰팡이 '득시글'

한국소비자원 조사

찜질방의 위생 및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역·터미널 주변 18개 찜질방에서 사용하는 베개, 매트, 안마의자의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13개 찜질방의 용품에서 곰팡이가, 3개 찜질방에서는 무좀균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찜질방의 총 70개 발한실 중 별도 환기 시설이 없는 곳이 38곳에 달했다. 8개 찜질방에서는 발열기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해 화상 위험이 높았다.

5개 찜질방은 비상구가 폐쇄됐으며, 6개 찜질방은 비상구 주변에 적치물을 쌓아둬 화재 등 응급상황시 대피가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수능, EBS와 70% 연계"

교육평가원, 6월 모의평가선 50%선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EBS 교재와 연계가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에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시험에서 EBS 교재와 연계율은 50% 안팎이었고 오는 11월18일 본 수능 때는 연계율이 7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예를 들어 수리영역 문항에서 숫자만 바꿨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기본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문항에 '변형'이 가해졌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원이 설명한 연계의 방식은 다섯 가지다.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 ▲지문·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핵심 제재와 논지를 가져다 구성한 문항 ▲문항 자체를 변형 또는 재구성한 경우 ▲단순 개념을 묻는 문항을 여러 개 섞는 방법 등이다.

언어영역 11번은 각각 두 가지 뜻을 갖는 동사 '부르다'와 '붇다'의 피동·사동태가 모두 '불리다'로 쓰이는데 그 예문을 맞게 짝지은 보기를 고르라는 문항이다.

EBS 교재 인터넷 수능 쓰기 & 어휘·어법 123쪽 3번은 역시 두 가지 뜻을 갖는 동사 '듣다'와 '들다'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한 문항이다. 문제에 쓰인 동사는 바뀌었지만 의미를 묻는 방식은 같은 셈이다.

모의평가 수리 나형 14번은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에서 x =0, y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물었다. EBS 교재 인터넷수능 '행렬/지수와로그/지수함수와 로그함수'편 29쪽 12번과 똑같은 유형으로 방정식에 들어간 숫자 네 개를 바꿔 출제했다.

외국어 영역에서는 셜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로 시작하는 같은 지문이 쓰였다. 그러나 EBS 영어독해연습Ⅱ의 문제는 문장을 하나 빼놓고 어디에 집어넣는 게 적절한지 물은 반면,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밑줄을 그은 단어 중 어법이 틀린 것을 고르라고 달리 물었다.

이번 모의평가를 보면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 중 하나는 'EBS 교재와 연계됐다는 문항이 다른 참고서에는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출제과정에서 검토 교사들이 다른 참고서의 기출 문제를 걸러냈다. 물론 다른 참고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룰 수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충장축제 10월 5일 열린다

거리 퍼레이드 경연 활성화

2010 광주충장축제가 오는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열린다.

10일 동구와 충장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010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제7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추억&만남'을 주제로 아시아문화전당 앞·충장로·금남로·예술의 거리 등 광주 도심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거리 퍼레이드 경연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추억의 시간여행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국가지정 축제에 걸맞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입체적 퍼레이드로 새롭게 기획한 '추억의 카니발' 거리퍼레이드는 파격적인 연출로 기획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충장축제 발전계획안을 담은 'VISION 2013'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충장축제를 통해 빠름보다 느림의, 첨단보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아날로그의 참 매력을 느끼는 감동어린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내실있는 준비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기는 최고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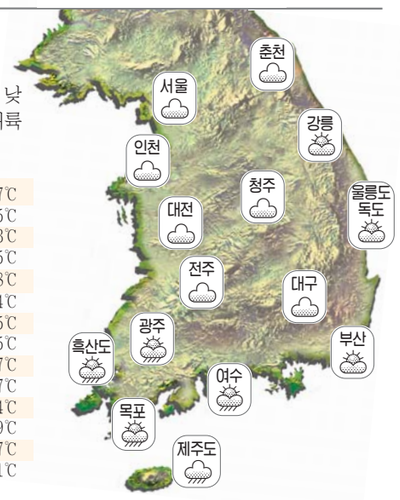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8분 해짐 19시 47분 달뜸 03시 46분 달짐 18시 44분

우산 챙기세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낮부터 해안에 비가 시작돼 내륙에도 비가 오겠다.

광 주	가끔흐리고비	19/27℃
목 포	가끔흐리고비	19/25℃
여 수	가끔흐리고비	18/23℃
완 도	흐리고비	16/25℃
구 례	가끔흐리고비	16/28℃
해 남	흐리고비	16/24℃
장 흥	흐리고비	16/25℃
고 흥	가끔흐리고비	16/25℃
순 천	가끔흐리고비	17/27℃
영 광	가끔흐리고비	17/27℃
진 도	흐리고비	16/24℃
전 주	흐림	19/29℃
남 원	흐림	15/27℃
흑산도	흐리고비	17/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매우높음	경고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1:10 13:03	06:35 18:27
여수	07:54 20:37	01:58 13:5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7(목)
최저/최고	20/26	18/30	18/30	19/28	19/30	19/30

"생계 침해형 범죄 척결 주력"

양성철 광주경찰청장 취임

"책임치안으로 '빛고을' 광주를 범죄와 사고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0일 취임한 양성철(55)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경찰의 기본 사명이자 책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보이는 경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감 치안'을 만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양 청장은 "지역 치안 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이송범 전 청장 유고 상황에서도 빈틈없이 임무를 수행한 정순도 차장 이하 전 직원에게도 아낌없는 찬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양 청장은 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치안'을 향상시키 위해 강·절도는 물론, 서민을 울리는 조직폭력과 불법대부업·전화금융사기 등 생계 침해형 범죄 척결을 통해 국민 생활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양 청장은 "경찰의 신뢰 향상을 위해선 긍지와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며 "어떠한 유혹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공평무사한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 출신인 양 청장은 목포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전남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장 자리는 지난달 25일 이송범 전 청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이종행기자 golee@